

瓶窩 李衡祥의 詩經意識에 나타난 反朱子の 要素

陳 甲 坤*

• 目 次 •

- | | |
|-----------------------|-----------------|
| I. 序 論 | 2. 作品內的인 面 |
| II. 詩經意識에 나타난 反朱子の 要素 | 가. 作品解釋 |
| 1. 作品外的인 面 | 나. 作品 各篇의 創作時期 |
| 가. 詩序의 信賴 | 3. 反朱子の 要素가 지니는 |
| 나. 正變說 | 意味-結論 삼아- |
| 다. 樂詩 | |

I. 序 論

瓶窩 李衡祥(1653-1733, 字 仲玉, 號 瓶窩, 浩然, 順翁)은 朱子學의 名分論과 禮訟, 이를 둘러싼 정권다툼 등 사상적으로 폐쇄성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 일생을 살면서 학문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性理學은 물론 天文, 地理, 禮樂書數로부터 幽經癖書, 稗史小說에 이르기까지 貫通하여 남긴 저서만도 무려 142種(326冊)에 이른다. 특히 그는 문학에도 뛰어나 총 63종의 文體를 남기고 있는데, 그 중 다른 문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각종 詩體를 비롯한 한시가 2,458수(칠률 714수)나 되고, 「天君傳」을 비롯한 傳만도 14首에 이른다. 하지만 오늘날 그가 남긴 著書 總目(『覆瓿類目』)을 一瞥해보면 文學보다는 經學과 禮學, 樂學에 더욱 뛰어난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병와에 대한 연구는 약 20 여편이 이루어졌지만 人物 研究 내지는 樂府와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할 뿐 다른 학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瓶窩의 폭넓은 학문분야 중 先學들이 거의 손을 대지않은 經學, 그 중에서도 필자의 전공분야인 文學에서 다룰 수 있는 詩經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고에 앞서 먼저 瓶窩의 經學에 대한 관심과 깊이를 천착하기 위해 연보를 중심으로 이 방면의 평생 업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瓶窩는 십세경에 이미 四書와 二經(詩書)을 읽었고, 「碁三百章」을 探索한 뒤 부터는 科業에 뜻을 두지 않고 經史와 禮書에 傾倒하였다고 한다. 經學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일흔의 老齡에도 여전하여 易經 공부의 부족함을 탄식하여 假年을 구할 정도였다.¹⁾ 그 결과 「大學講義」4冊과 「大學訓蒙」1冊을 시작으로 평생동안 經學에 대한 많은 저서

* 慶北大學校 講師

1) 群經雖晦覺心通 概爲生平格致 惟 有易 乏窮不盡 假年吾亦祝天公(「乙巳立春」)

를 남기고 있는데, 「四書訓蒙」(1705), 「詩易同異」(1713), 「四書三經」(1717), 「詩傳抄」(1719), 「經書採綱」(1724), 「瓶窩講義」(1725), 「經書類抄」(1733, 未完) 등이 그것이다. 이로 볼 때 그가 詩經을 비롯한 經學 전반에 걸쳐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II. 詩經意識에 나타난 反朱子の 要素

麗末. 鮮初에 들어온 朱子의 經典解釋은 조선 중기까지 절대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 중 詩經에 대한 해석은 芝峰, 象村, 谿谷의 小論에서 그 변환기적 모습의 편린을 찾아볼 수 있으나, 오히려 사상적으로 가장 억압이 강화되었던 17세기 후반에 들어 白湖와 西浦같은 反權威主義的 해석이 등장되었다.²⁾ 이들과 거의 동시대를 살아온 瓶窩 李衡祥의 詩經 認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그가 만년에 저술한 『詩傳講義』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저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朱子의 詩經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五聖贊」, 「慕聖吟」并序³⁾ 등을 통해서 볼 때 그가 평소 주자를 얼마나 敬慕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흠모의 대상에서 그치지 않고 때로는 유자들의 경직된 폐쇄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끈다. 그것이 비록 적극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조선 중기 儒者들의 詩經意識을 살피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 작품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으로 나누어 瓶窩의 시경의식에 나타난 反朱子の 要素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로 한다.

1. 作品外的인 面

가. 詩序의 信賴

詩序의 信賴 여부를 살피기 위해 먼저 『詩傳講義』의 體裁부터 검토해보기로 한다. 『詩傳講義』는 四始圖, 四始說, 經緯, 協韻, 讀法, 周南召南, 各篇總論 順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중 四始圖, 四始說을 제외하고는 『朱子語類』(卷80-81)의 「詩」篇과 유사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朱子語類』는 綱領, 論讀詩, 解詩, 周南召南 順으로 편찬되었는데 序頭의 綱領에서는 經緯, 協韻을 다루고 있어 병와가 이를 참고로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다만 주자가 詩序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음에 비해 병와는 전혀 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이 다르다. 詩序의 작자

2) 金興圭, 『朝鮮後記詩經論과 詩意識』,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8, pp. 44~60.

3) 擴前未發 集群大成 繼往開來 足跡目盲(『文集』 卷四贊 寒泉條), 堯舜文周孔 固皆如天 復宗述亞 謙明伊晦 亦所酷慕 卷中顏髮 況若各觀色象 思如天地 愛猶父母 任情述懷 情見于詞(『瓶窩集』 卷三).

에 대해 주자는 ‘村野妄人作’이라는 鄭樵의 설에 동조하여 그도 ‘山東學究者作’이라 하여 詩序의 신뢰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병와는 「答學子問目」에서 詩序에 대한 작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詩序誰作 皆謂子夏所作 而程子曰 其文似繁辭 似是孔子所爲(「詩序」는 누가 지은 것인가? 모두 자하가 지은 것이라고 하지만 정자는 이르시기를 “그 글이 계사와 같으니 공자가 지으신 것 같다”고 하셨다.)⁴⁾

「子夏作序說」은 鄭玄(127-200)의 『詩譜 序』에서 비롯되어 宋代 이전까지 신봉되었으나 송대에 이르러 歐陽修, 王安石, 蘇轍, 鄭樵, 程頤, 朱熹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異說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 程子是 ‘大序는 聖人の 작이고, 小序는 當時 國史作이다’라고 하였다. 병와는 ‘聖人所作’이라는 程子の 설에 동조함으로써 ‘詩序實不足信’, ‘妄意推想’이라 하여 詩序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해버린 朱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朱子와 異見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아예 『詩傳講義』의 전편에 걸쳐서 毛詩의 大義를 그대로 인용하여 朱子의 詩序에 대한 不信을 전적으로 부정했다.

한편 「讀法」에서는 ‘思無邪’와 ‘溫柔敦厚’ 및 讀詩의 姿勢에 대하여 논설을 펴고 있는데 여기서 병와는 ‘思無邪’와 ‘溫柔敦厚’에 대해서는 시인의 본뜻이 아니라 독자의 性情之正에 귀속시켜 결국 주자와 마찬가지로 시의 결과적 效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를 해석하는 근본자세에서는 序說을 버리고 ‘以詩解詩’를 주장하는 朱子와는 달리 오히려 독자의 느낌이 이와 합당하는지를 살피게 하고 있다.

今計不若姑且序說及註解 虛心尋討主張體驗 有若親當其時 親到其地 曲曲思索 果得其旨 則漸漸推去 窮到言外 始將序說註解 以驗吾見之當否 或有不可曉者 姑闕之以俟後日 且又就質於先覺者 以開吾蒙可也 (이제 헤아리건대 잠시 서설과 주해를 놔두고 마음을 비우고 깊이 살피어 스스로 주장해보고 체험하여 마치 친히 그때를 당하고 친히 그 땅에 이른 것 같이 하여 간절히 생각하여 과연 그 뜻을 얻으면 곧 점점 미루어 가 말 밖에 뜻을 궁구해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설과 주해를 가지고 써 내 견해가 마땅한지 어떤지를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 간혹 이해가 안되는 것은 잠시 이를 놔두었다가 후일을 기다리든지 또는 먼저 배운이에게 나아가 물어서 나의 몽매함을 깨닫는 것이 가하다)

이로써 병와는 序說의 가치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4) 『瓶窩先生文集』卷八 「答學子問目」.

나. 正變說

병와가 冒頭에서 장황하게 펼친 「四始說」은 『史記』에서 비롯되는데 여기서 그는 중요한 몇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다.

‘事莫不有始……風之體如後世歌謠 採之民間而用之邦國 其言主於達事情通諷諭 二南爲風之始 而純乎美故爲正風 諸國之風 兼美刺故謂之變風 變風者 詩之正而事之變故亦屬於變 雅之體後世之五七言古詩 作於公卿大夫 用之於朝會宴享 其言主於述先德 通下情 事有大小 故有大雅焉 有小雅焉 概是陳戒之辭也…… 成康以上 專於美故謂之正雅 其後兼美刺故謂之變雅 頌之體如後世之樂府 作於朝士 用於郊廟 其言主於美盛德告成功 其正商頌周頌是也 魯頌不當作而作 故比之風雅亦變之類也’ (일에는 비롯됨이 있지 않을 수 없다……풍의 시체는 후세의 가요와 같은데 민간에서 이를 채집하여 나라에 썼으니 그 말은 주로 사정을 통달하고 풍유를 통하였다. 이남이 풍의 비롯함이고 순미한 고로 정풍이 되고 제국의 풍은 미자를 겸한 고로 이를 변풍이라 이른다. 빈풍은 시는 옳바르지만 일이 변한 까닭으로 또한 變風에 속한다. 아의 시체는 후세의 오칠언고시와 같은데 공경대부가 지어 조희나 연향에 이를 썼다. 그 말은 주로 선조의 덕을 서술하고 아래의 정을 통하는 것이다. 일에는 대소가 있으므로 대아가 있고 소아가 있는 것이다. 대개 이는 경계를 진술한 말이다. 성왕, 강왕 이상은 오로지 순미한 고로 이를 정아라 이르고, 그 후는 미자를 겸한 고로 이를 변아라 이른다. 송의 시체는 후세의 악부와 같은데 조정의 선비가 짓고 천지의 제사나 조정의 제사에 쓴다. 그 말은 주로 성덕을 찬미하고 성공을 고하는 것이다. 그 바른 것은 상송과 주송이 이것이고, 노송은 마땅히 지어지지않았으야 하나 지어진 고로 이를 풍아에 비기건대 또한 변체의 류인 것이다. P.425)

이로써 병와는 美刺에 따라 正變詩를 구분하고 있고, 魯頌을 變體로 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詩經에 正詩와 變詩가 있다는 구분은 詩序에서 비롯되어 이후 시경론자들에 의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중에 朱子는 風의 正變을 世次에 의한 것이라 하였고, 正雅는 音樂的인 면으로 말했고, 變雅에 대하여는 「事未必同而各以其聲附之」라고 모호하게 설명, 次序時世도 考證이 不可하다고 했다.⁵⁾ 또 毛詩序의 美刺說에 대하여는 ‘妄意推想’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로 볼 때 병와의 美刺에 따른 正變의 구분은 분명히 주자와 다른 견해에 속한다. 아울러 變雅의 次序時世가 考證이 不可하다고 한 주자와는 달리 병와는 하나하나 그 時世를 밝히고 있으니(뒷장에서 詳論) 이 또한 주자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볼 수 있다.

5) 金時俊, 『毛詩研究』, 博士學位論文, 서울대, 1980, pp. 145~146.

한편 頌을 正變으로 나누어 魯頌을 變體의 類로 보는 설⁶⁾은 新安 王柏(1197-1274)의 『詩疑』에서 처음 발견된다.⁷⁾ 王柏은 주자의 제자이면서 『詩疑』를 통하여 스승의 설에 반박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병와가 王柏의 설을 따랐다는 것은 역시 주자설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여하튼 이러한 정변에 따라 병와는 詩三百을 正風(周南,召南) 25편, 變風(十三國風) 135편, 正小雅(鹿鳴-菁莪) 22편, 變小雅(六月-何草不黃) 58편, 正大雅(文王-卷阿) 18편, 變大雅(民勞-召旻) 13편이라고 분류하여 오히려 漢唐詩經論을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頌에 대해서는 清廟-般 26편, 康王 2편, 昭王 1편 합이 29편이라고 하였으나 사실 頌은 전부 40편이므로 병와의 계산대로라면 11편이 부족한 셈이다.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지는 몰라도 틀림없이 계산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다. 樂詩

「協韻」條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병와의 시경론이 보인다.

十五國風 以辨風土之音 大小二雅以辨朝廷之音 周魯商三頌 以辨侑祭之音 南陔 白華華黍崇丘由庚由儀六笙 以辨協歌之音 得詩而得聲者 則存之 三百十一篇是也得詩而不得聲者 刪之 河水祁昭之類 卽所謂逸詩也(심오국풍은 풍토의 음으로써 분별하고, 대아, 소아는 조정의 음으로써 분별하고, 주·로·송의 삼송은 侑祭의 음으로써 분별하고, 남가·白華·華黍·崇丘·由庚·由儀의 六笙詩는 協歌의 음으로써 분별한다. 시를 얻고 소리를 얻은 것은 곧 남아 있으니 三百十一篇이 이것이고, 시는 얻었으나 소리를 얻지 못한 것은 깎았으니 「河水」, 「祁昭」의 類로 곧 이른바 逸詩이다. p. 427)

위에서 말한 시를 얻고 소리를 얻은 것(得詩而得聲者)이 三百十一篇이라는 주장은 詩三百이 모두 樂詩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樂詩는 이미 先秦時代부터 있어 왔으나 송대에 들어 樂詩와 徒詩로 구분되었던 것이다. 程大昌(1123-1195)이 처음으로 南·雅·頌을 樂詩라 하고 國風을 徒詩라 한 뒤에 朱子가 이를 이어 正風과 正雅, 頌은 樂詩이고 變風, 變雅는 不入樂詩 즉 徒詩임을 밝혔다. 병와에게서는 이러한 구분이 발견되지 않고, 또 變大雅의 「板」과 變風의 「相鼠」가 노래된 『左傳』의 기록을 예로 든 것으로 봐서⁸⁾ 詩三百을 樂詩라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음악에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는 실제 詩經의 몇몇 작품들을 十二律에 맞추어 樂譜에 올려 놓아 樂詩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

6) 『永陽錄』 「毛詩」의 自註에 ‘泮宮과 駟은 다 魯頌인데 지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 지어졌으므로 變의 類다’고 했다.

7) 『詩疑』卷一周頌. 大抵魯頌皆以美其君 於宗廟無預其詩似用以燕樂 此頌之變也.

8) 試考左傳所載 則列國大夫之交聘 賦詩者率多斷章取義以寓己意 如……荀林父送先蔑而乃賦板之卒章 叔孫豹食慶封而亦賦相鼠 是借二詩以明箴規之意也(『瓶窩全書』9, 「樂學便考」 「雅樂原流」條. p. 699).

한 흔적은 『樂學便考』 편찬에 대한 李仲舒의 질문에 대한 답장⁹⁾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詩傳講義』에도 나타난다. 즉 小雅 「鹿鳴」篇에서 ‘我有嘉賓’은 각 장마다 나타나지만 각장의 뜻은 물론 소리도 다르다고 하였으며, 小雅 「魚麗」, 小雅 「南有嘉魚」篇 각 장에 나타나는 ‘君子有酒’ 역시 뜻과 소리가 다를음을 다음과 같이 十二律로 표시하고 있다.

首章	我	蕤賓	有	林鍾	嘉	應鍾	賓	南呂
次章	我	林鍾	有	南呂	嘉	應鍾	賓	黃鍾
卒章	我	蕤賓	有	南呂	嘉	應鍾	賓	南呂
首章	君	蕤賓	子	林鍾	有	應鍾	酒	南呂
次章	君	蕤賓	子	林鍾	有	蕤賓	酒	姑洗
卒章	君	蕤賓	子	姑洗	有	林鍾	酒	南呂

10)

또한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樂學便考』序에 따르면 「關雎」, 「螽斯」, 「麟之趾」篇도 樂調에 따라 분류를 하였던 것 같다.¹¹⁾

한편 十五國風이 풍토의 음에 따라 구분된다는 설은 風, 風의 설명에 적용되고 있다. 邶와 鄘은 모두 衛地에 들어가고 또 내용이 衛의 일인데도 패용의 명칭을 그대로 쓴 사실에 대해 주자는 ‘不可曉’라고 했다. 그러나 瓶窩는 ‘衛有衛音 鄘有鄘音 邶有邶音 得於衛地者爲衛 得於邶鄘者爲邶鄘’ (위에는 위의 소리가 있고, 용에는 용의 소리가 있고, 패에는 패의 소리가 있다. 위 지역에서 얻은 것은 위풍이 되고, 패와 용에서 얻은 것은 패풍, 용풍이 된다)라고 해석했다. 즉 각 지역의 음이 다른 것으로써 列國의 시를 구분한 것이다. 그 예로 王風 「黍離」가 西周 땅 鎬京에서 읊은 것이지만 시인은 東周人이고 또 平王 때의 시는 이미 東周이기 때문에 二南에 들지 못한다는 사실과, 「木瓜」가 齊桓公을 기린 시이지만은 衛나라 사람이 읊었기 때문에 衛風에 속하며, 「猗嗟」는 비록 魯莊公을 풍자한 시이나 齊 땅의 사람들이 읊었기 때문에 齊風¹²⁾임을 들고 있다.

9) 卷七「答李仲舒」, 東方雅樂三調方音也 盛教所論鍾律也 雖自琴譜而創音調微有不同歌曲亦無定音 似不可執一也 南風鹿鳴魚麗以字配律古法而雅樂也 飛龍詞等七歌及關雎 斯麟之趾 分配於三調 臆見而俗樂也 翫其意而諷其辭似有如此者存焉 概三調既用於樂 則與古相室豈理乎不必強配等教 或未深思耶

10) 惟其旨意之各異也 腔調又從而異, 以今觀之非但與體不同音調亦異說見上.

11) 於是 以關雎 斯麟之趾 類別 協諸於平羽界面三調 著樂學便考一卷 其將待後世之子雲也(「樂學便考」序).

12) 黍離何不列於二南 周大夫行役至於宗周之地 閱其壤而思其舊詩雖作於西周人則東周也 故列之於王 平王何以不曰雅 以其地則西周也 幽厲何以不曰風 以其地則成周也 如此則木瓜 雖美齊而在衛 嗟雖刺魯而在齊(p. 441).

2. 作品內的인 面

가. 作品 解釋

詩經 作品의 해석 문제 中 흔히 거론되는 것은 淫詩를 어떻게 풀이하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詩序에서는 11편이 淫詩로 구분되고 있는데, 주자는 邶風「靜女」, 鄘風「桑中」, 衛風「木瓜」등 이십여편을 淫詩¹³⁾로 규정하고 있다. 병와도 淫詩로 규정된 대부분의 작품들에 대해 그 주자설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다만 王風「采葛」, 鄭風「出其東門」¹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采葛」의 大義를 毛傳에서는 참언을 두려워하는 뜻(懼讒)으로 보았는데, 주자는 이를 淫奔한 자가 의탁한 것(蓋淫奔者託以行也)으로 보았다. 이러한 주자설에 대해 병와는 명징할 만한 뚜렷한 자료(작품내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혹 이것이 사람을 그리워해서 지은 시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¹⁵⁾ 또 「出其東門」을 毛傳에서는 나라의 어지러움을 슬프게 여긴 시(閔亂)라고 했고, 주자는 淫詩로 봤는데¹⁶⁾ 병와는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를 읊은 시¹⁷⁾라고 하여 淫詩에서 제외하였다. 鄭風은 『論語, 衛靈公篇』의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정나라의 음악을 추방하고 말 잘하는 아첨배를 멀리하라. 정나라의 음악은 음란하고, 아첨배는 위태롭다.)」와 「陽貨篇」의 「惡鄭聲之亂雅樂(정나라의 음악이 바른 아악을 문란하게 하는 것을 미워한다)」라는 대목에 의거하여 몇몇 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가 淫詩로 규정되고 있는데, 병와의 경우 다른 鄭風에 대해서는 朱子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지만 유독 이 「出其東門」篇에 대해서는 선왕의 은택이 미친 훌륭한 시로 보고자 했다. 그래서 「緇衣」, 「羔裘」, 「女曰鷄鳴」과 함께 「樂中之玉」이라는 安城 劉瑾의 설¹⁸⁾에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淫詩의 구분 말고도 작품 해석에 있어 주자와 이견을 보이는 것은 小雅「蓼莪」篇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3) 邶風 靜女, 鄘風 桑中, 衛風 木瓜, 王風 采葛, 丘中有麻, 鄭風 將仲子, 遵大路, 有女同車, 山有芙蕖, 蓼兮, 攸童, 褰裳, 東門之墀, 丰, 風雨, 子衿, 揚之水, 出其東門, 野有蔓草, 溱洧, 齊風 東方之日, 陳風 東門之池, 東門之楊, 月出 등.

14) 참고로 두 작품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彼采葛兮 一日不見 如三月兮 彼采蕭兮 一日不見 如三秋兮 彼采艾兮 一日不見 如三歲兮(采葛). 出其東門 有女如雲 雖則如雲 匪我思存 綯衣綦巾 聊樂我員 出其閨闈 有女如荼 雖則如荼 匪我思且 綯衣茹蘆 聊可與娛(出其東門).

15) 註家宜以爲淫奔之詞 但無明證 或是懷人而作歎可疑(p. 443).

16) 人見淫奔之女而作此詩 以爲此女雖美且衆而非我思之所存也 如己之室家雖貧且陋而聊可以自樂也(p. 118).

17) 此詩與女曰鷄鳴 獨有夫婦之義 乃如之人寧不可善 大序曰發乎情 止乎禮義 可觀先王之澤若信矣(p. 447).

18) 緇衣羔裘 女曰鷄鳴 出其東門 可謂樂中之玉 大叔于田及清人 雖無足尚 非爲淫奔而作 若叔于田 亦未克男女相悅 亦不爲淫奔 自昔說詩 惟以東門 溱洧淫詩 朱子乃例以淫奔者 卽其情正以發明放鄭之旨 不然則衛齊陳非無淫奔聲 夫子何獨以鄭聲爲當放哉 劉安城此說可監(「總論鄭風」, p. 447).

章句 人民勞苦 孝子不得終養而作此 陳永嘉曰 孝子行役而喪親者所作 今觀二章 怙恃銜恤 顯有悲慨之意 三章道其恩甚切 陳說似或然矣(장구에서는 백성들이 노고 함에도 효자가 끝까지 부모를 봉양치 못해 이를 지었다고 했다. 진영가가 말하기를 “효자가 수자리에 나가 아버지를 잃은 자가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이제 이장을 보면 ‘怙恃銜恤’에서 슬퍼하는 뜻이 있음을 드러내었고, 삼장에서는 그 은혜가 매우 간절함을 말하였다”. 陳鵬飛의 설이 혹 그럴 듯하다. p.474)

두 견해는 비슷한 듯하면서 같지 않다. 즉 詩序의 大義(民人勞苦 孝子不得終養爾)를 그대로 인용한 주자의 설은 幽王의 失政으로 백성들이 피폐하여 부모를 봉양치 못함을 노래한 것이라고 했고, 陳鵬飛는 수자리에 나갔다가 부모를 잃고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풀이했다. 병와는 朱子보다 陳의 설이 近理하다고 보았다. 陳의 설로써 병와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병와는 이와 같이 詩經을 강의함에 있어 많은 부분에 걸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보다 비교적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기존의 설을 끌어들이어 이에 동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주관성의 결여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나 자칫 독단적인 해석에 빠지기 쉬운 학문풍토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공자가 詩書를 刪定할 때에도 문학에 조예가 깊은 子遊와 子夏의 무리조차 이에 대해 한 마디의 말도 덧붙일 수가 없었는데 요즘 선비들은 그림자 속을 어렴풋이 바라보기만 하면 스스로 前聖이 발명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고 큰 소리쳐서 마침내 經을 훼손하고 聖을 모독하고야 만다¹⁹⁾고 통탄한 것으로 봐서도 이 점은 이해가 간다. 그래서 병와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정적인 語辭보다는 留保의인 推論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나. 作品 各篇의 創作時期

詩經의 시들은 위낙 遼古時代의 사실을 읊어 놓은 것인지라 그 시대를 정확히 고증한다는 것은 여간 至難한 일이 아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詩經研究者들이 이를 고증한 결과 다수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학자마다 견해 정도의 차이가 심한 경우도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 『毛詩正義』를 중심으로 한 高麗時代의 詩經學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詩集傳』으로 대체되는데, 이는 세종조의 『詩傳大全』 하사 기록에 의해 명료하게 확인된다.²⁰⁾ 이 책은 明나라 永樂 年間에 胡廣(1370-1418), 楊榮, 金幼孜 등이 勅命을 받아 편찬한 것으로 그 내용은 『詩集傳』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卷首에 보면 「諸國譜系圖」 다음에 「作詩時世圖」란 것이 붙어 있는데 이는 각 詩篇

19) 卷十三 「尊經說示兒輩」, 夫子刪詩書 游夏之徒 不能贊一辭 彼以文學著稱其地位造詣如何 而尚不敢以一辭以贊……世之執偏見好議論者 或有依依影裏之望 則輒自以爲發前聖所未發 欲騁私智於一字一言之間 自高自大 毀經侮聖 而後已 可勝痛哉 此學者所當先知也.

20) 金興圭, 前掲書, p. 35.

들의 창작 연대를 추정하여 時代順으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 이 도표에는 商代를 포함하여 文王, 武王에서 匡王 以後까지 시편들의 時世가 밝혀져 있다. 또한 時世未詳이라 규정한 시들도 108편(風 76篇, 小雅 32篇)이나 된다. 이제 이 도표와 병와의 경우를 대조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병와가 거의 이를 참고로 하지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儒者라면 누구에게나 必讀書로 읽혀진 『詩傳大全』이고 또한 병와 자신도 작품 해석의 많은 부분에서 이를 참조하고 있지만 時世만은 兩書間의 이견 정도가 심하다.

병와가 作品各篇에서 밝힌 時世를 종합정리하여 간단히 도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時 世	國	風
周 文 王	周南十一篇 召南(何彼穠矣, 甘棠 除外)十二篇(○) 豳風七月 鵲巢東山 破斧 伐柯 九罏 狼跋(成王)	
武 王	甘棠(文王) 何彼穠矣(○)	
共和之間	陳風宛丘 東門之扮(未詳)	
懿 王	齊風鷄鳴 還 著 東方之日 東方未明(未詳)	
夷 王	邶 風柏舟(平王)	
夷厲之間	檜風羔裘素冠 隰有萋楚 匪風(未詳)	
宣 王	邶 風柏舟(○) 唐風蟋蟀 山有樞 綢繆 杕杜 羔裘 鷄羽(未詳) 揚之水(平王) 椒聊(平王以後) 秦風車隣 駟鐵(平王以後) 陳風衡門 東門之池 東門之楊(未詳)	
平 王	北 風綠衣(○) 衛風淇澳(幽王以後) 考槃(未詳) 碩人(○) 王風黍離 揚之水(○) 君子于役 君子陽陽 中谷有推 葛藟(平王以後) 鄭風緇衣(幽王以後) 秦風小戎(○) 蒹葭(未詳) 終南(平王以後)	
平桓之間	魏風葛屨 汾沮如 園有桃 陟岵 十畝之間 伐檀 碩鼠(未詳)	
桓 王	邶 風燕燕 日月 擊鼓 旄丘 靜女 二子乘舟 新臺(○) 日月 終風(平王), 凱風 雄雉 匏有苦葉 谷風 簡兮 泉水 北門 靜女(未詳) ¹⁾ 鄘風牆有茨 君子偕老 鶉之奔奔(桓王 以後) 桑中(未詳) 衛風氓 竹竿 九蘭 伯兮 有狐(未詳) 王風兔爰 采芣 人車(平王以後) 鄭風將仲子 羔裘 遵大路 女曰鷄鳴 山有扶蘇 採芣(未詳) ²⁾ 叔于田 大叔于田(平王) 清人(惠王) 陳風墓門(未詳)	
莊 王	王風丘中有麻(平王以後) 鄭風有女同車 褰裳(未詳) 齊風南山 敝笱 載驅 猗嗟(○) 甫田 盧令(未詳)	

時 世	國 風
釐 王	鄭風丰 東門之禪 風雨 子衿 揚之水 出其東門 野有蔓草 溱洧(未詳) 唐風無衣(○) 有杕之杜(未詳)
惠 王	鄘風定之方中 蟋蟀 相鼠 干旄 載馳(○) 衛風木瓜(未詳) 唐風葛生 采芣(未詳) 曹風蜉蝣(未詳)
襄 王	衛風河廣(○) 秦風黃鳥 渭陽(○) 晨風 無衣 權輿(未詳) 陳風鵲巢 月出(未詳)
頃 王	陳風株林(匡王以後) 澤陂(未詳) 曹風候人(襄王) 鵲鳩 下泉(未詳)
景 王	邶風式微(桓王)

時 世	小 雅	大 雅
周文王	鹿鳴 四牡 皇皇者華 伐木 天保 采芣 出車 林杜 南陔(武王以後)	文王 大明 綿 域樸 旱麓 思齊 皇矣 靈臺(成王)
武 王	白華 華黍 魚麗(武王以後)	
成 王	常村棣 由庚 南有嘉魚 崇丘 南山有臺 由儀 蓼蕭 湛露 彤弓 菁菁者莪(武王以後)	下武 文王有聲 生民 行葦 既醉 鳧鷖 假樂 公劉 洞酌 卷阿(○)
厲 王		民勞 板蕩 桑柔(○) 抑(平王)
宣 王	六月 采芣 車攻 吉日(○) 鴻雁 庭燎 沔水 鶴鳴 祈父 白駒 黃鳥 我行其野 斯干 無羊 (厲王以後)	雲漢 崧高 蒸民 韓奕 江漢 常武(○)
幽 王	節彼南山 以下四十四篇(○)	瞻卬 召旻(○)

時 世	頌
商 湯	商頌那(太甲以後)
中 宗	烈祖(〃)
高 宗	長發(〃) 玄鳥 殷武(祖甲以後)
武 王	周頌時邁(○) 桓 賁 般(成王)
成 王	周頌清廟 維天之命 維清 烈文 天作 昊天有成命 我將(○) 執競 - 酌 二十篇(昭王以後)
魯僖公	魯頌 四篇(惠王以後)

** ()안은 『詩傳大全』의 作詩時世圖임 (○)는 時世一致

1) 「北風」의 時世가 漏落 2) 「狡童」의 時世가 漏落

『詩傳講義』에서는 邶 風의 「北風」과 鄭 風의 「狡童」만이 시세가 누락되어 있을 뿐 『詩傳大全』에서 時世未詳으로 제시된 108편의 시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밝혀 놓았다. 또한 『詩傳大全』에서는 ‘○王以後’라 하여 조금은 막연한 시세를 병와는 ‘共和之間’, ‘夷厲之間’, ‘平桓之間’이라 제시한 두 王朝에 걸친 몇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王朝에 고정시켜 정확성을 기하고자 했다.

어떤 경우는 『詩傳大全』과 엄청난 시세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 즉 邶 風의 「柏舟」는 平王(17代)이 夷王(12代)으로 5代나 시대가 상향조정되어 있고, 邶 風 「式微」는 桓王(17代)이 景王(27代)으로 10代나 하향조정되어 있다. 병와가 제시한 시세가 얼마만큼의 합리적 타당성을 지니는지 앞으로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들어 時世를 판단한 경우도 간혹 보인다. 「式微」가 그 중의 하나에 속한다.

詩註如此(周桓王)而春秋襄公二十九年 夏五月 公至自楚 左傳還及方城 季武子取卞 使公治問 公欲無入 盖忌季氏之專也 榮成伯賦式微 乃歸 註榮駕鵞 時從公乃賦邶風 式微詩曰 式微式微 胡不歸 義取寄寓之微勸公歸也 此則周景王詩也(詩註는 이와 같으나(周 桓王으로 되어 있음) 『春秋』의 襄公 二十九年 여름 五月 조에 ‘공이 초나라에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고 『左傳』에는 돌아오다 방성에 이르렀을 때 季武子가 卞지방을 점령했다. 公治로 하여금 (공을) 문안 드리게 했다. 公이 나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으니 대개 季氏의 專橫을 꺼렸기 때문이다. 榮成伯이 「式微」를 지어서 이에 돌아갔다. 주에 榮駕鵞가 때에 공을 좇아서 이에 邶 風「式微」詩 ‘쇠미하고 쇠미했거늘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오’를 노래하였는데 뜻은 기탁함(黎 衡에 기탁함) 쇠미했으니 공에게 돌아갈 것을 권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周景王 때의 詩이다. P.436)

『詩傳大全』에서는 桓王(B.C. 719-697)이라고 하였으나 병와는 『春秋左氏傳』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景王(B.C. 544-520) 때의 시로 간주하고자 했다. 『左氏傳』에서 밝힌 魯襄公(B.C. 572-542) 二九年(B.C. 544年)은 景王 元年이 된다. 桓王과 景王은 170년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左傳 原文의 ‘賦’字를 읊었다(詠歌)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병와는 作詩의 의미로 단정지었는 것 같다. 이와같이 때로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時世를 밝히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말미에 단순히 제시만 해놓고 있어 설득력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병와가 밝힌 時世가 과연 병와 개인의 고증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參考資料를 근거로 했는가 하는 것이다. 『詩傳講義』의 전체적 흐름으로 봐서 다른 저서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단언할 수 없다. 만약 병와 개인의 고증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시경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병와는 『詩傳大全』과는 전혀 다른 時世를 주장함으로써 朱子說이 지배적이던 당대의 權威主義的 詩經意識에 대한 도전(挑戰)을 하고 있는 셈이다.

Ⅲ. 反朱子の 要素가 지니는 意味 - 結論 삼아 -

朱子가 詩序를 버리자 유학자들도 이를 따라 詩序의 가치를 불신하고 朱子說에만 얽매이게 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瓶窩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美刺에 따라 正變을 구분함으로써 폐쇄적이고 경직된 중세적 시경의식에서 탈피한 모습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시서의 가치만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주자 이외의 학설도 보여주고 있다. 즉 淫詩를 비롯한 작품해석에 있어 詩序 뿐만 아니라 朱子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펼쳐보여 주고 있어 수용하는 독자에 따라 시를 보는 인식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도 제시했다.

詩三百을 樂詩로 파악한 것은 평소 樂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詩經만으로도 ‘性情之正’의 효용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음악과의 조화를 통한 ‘成於樂’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樂詩說은 작품해석과의 유기적 관계가 아주 미약하므로 시경의식에 큰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지만 徒詩를 구분한 朱子와는 다른 견해이므로 사상사 전반의 흐름에 微動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작품의 창작시기에 대해서는 그 합리적 타당성과 함께 時世가 달라짐에 따라 작품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더 고구해 봐야 할 일이지만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자와의 상반된 견해만으로도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時世에 대한 고증이 병와 고유의 연구에서 나온 것이고, 그 타당성까지 인정이 된다면 시경학사상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反朱子の 要素들이 다른 저서를 통해 많이 확인될 경우(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실학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瓶窩도 17세기 후반에 들어 현저하게 성장한 反權威的 詩經論의 대열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조선 후기의 사상적 전환에 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병와는 白湖, 西浦를 거쳐 星湖, 石川, 茶山으로 이어지는 反權威主義的 詩經論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끝으로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병와의 經學 全般을 천착하여 그 속에서 詩經意識을 재투명해 보는 일이다.

參 考 文 獻

- 『瓶窩全書』,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2.
 朱熹,『朱子語類』,『詩集傳』.
 胡廣 等,『詩傳大全』.
 權寧徹,『瓶窩李衡祥研究』,韓國研究院,1978.
 金興圭,『朝鮮後期の 詩經論과 詩意識』,高大民族文化研究所,1988.
 金時俊,『毛詩研究』,서울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80.
 崔錫基,星湖 李漢의 詩經解釋에 나타난 經世觀,慶尚大 論文集29,1990.

瓶窩 關係 參考文獻

- 金聖七, 瓶窩의 『南宦博物』,新光誌,1951.
 金泰能, 濟州土俗과 永川 李牧使의 治績,濟州道誌第30號, 1957.
 沈載完, 瓶窩歌曲集의 研究,논문집제1집,청구대학,1958.
 濟州大學 主催 第一回濟州學術會議,「李衡祥牧使 研究」,1974.
 權寧徹, 樂學便考에 대하여,陶南趙潤濟博士古稀記念論叢, 螢雪出版社,1976.
 李載滢, 瓶窩公의 治績,李花報第25號,1977.
 李定宰, 瓶窩公과 宗事,李花報第25號,1977.
 崔淳姬,『瓶窩先生 文集』 解題,1978.
 權寧徹,『瓶窩李衡祥研究』,韓國研究院,1978.
 權寧徹,『閨範英選』에 대하여,『여성문제연구』제7집,효성여대,1978.
 權寧徹,『江都誌』에 대하여,논문집 제20집, 효성여대,1978.
 權寧徹, 瓶窩의 平羽界面調 壽詞 研究,慕山沈在完博士華甲紀念時調論叢,一潮閣, 1978.
 金東俊, 樂學拾零攷,影印本『樂學拾零』 東國大學校 韓國學研究所,1978.
 李定宰,『瓶窩 年譜』,清權祠,1979.
 姜銓燮, 筆寫本『樂學便考』에 대한 管見, 藏菴池憲英先生古稀記念論叢,螢雪出版社, 1980.
 黃忠基,『樂學拾零考』,국어국문학제87호,1982.
 李衡祥,『瓶窩全書』,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2.
 白源哲, 瓶窩樂府小考,論文集22輯,公州師大,1984.
 金榮淑, 象村과 瓶窩의 樂府研究, 어문학제46호,1985.
 姜銓燮, 瓶窩 李衡祥의 漢譯歌曲 小考,국어국문학제102호, 1989.